

대담 - 삶과 학문*

대답자: 선생님께서 40여 년간 국어학 연구와 교육에 몸담아 오셨는데 내일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논문과 책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국어학의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만 오늘은 그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다 펼치신 선생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방언조사를 통해서 조사자 역할은 많이 해 보셨겠지만 제보자 역할은 오늘 대담에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 허허, 그렇습니다. 좋은 제보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동 웃음)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

대답자: 우선 선생님께서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선생님: 나는 전공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극히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실들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1944년 10월 1일에 경남 삼천포

* 이 대담은 2010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1동 302호에서 이루어졌다. 참석자는 배주채, 김봉국, 임석규, 한성우, 이현정, 이상신, 하신영이었다. 김봉국이 사회 및 진행을 맡았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 질문을 하였다. 최명옥 선생은 '선생님'으로 표시하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문을 한 일곱 명은 모두 '대답자'로 표시하였다.

시(지금의 사천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삼천포는 한국의 남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은 친구들과 줄지어 수영하러 다니던 일입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친구들과 줄지어 물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치고 몸이 추워지면 밖으로 나와 바위나 돌밭에 엎디어 몸을 덥히고는 또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헤엄을 쳤습니다. 그냥 헤엄만 친 것이 아니라 줄을 지어 차례로 다이빙도 하고 사금파리 같은 것을 물 속에 던져 놓고 자맥질을 하여 그것을 집어오는 놀이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고는 다시 함께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매년 여름이면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일곱 살 때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육이오 사변이 일어났고 여덟 살 때인 1951년 4월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당시의 이름으로는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삼천포 문선국민학교.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의 기억으로 뚜렷한 것은 학업성과 4학년 때의 음악 시간과 웅변입니다. 먼저 말할 것은 초등학교, 텔레비전에서는 누가 ‘국민학교’라고 하면 애써 ‘초등학교’라고 바꾸어 말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그 시대의 정서에 더 맞기 때문에 그냥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때의 학업성적에 대한 것입니다. 일학년 입학을 해서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 나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는 모두가 생활이 어려워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 끼니를 굶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집들이 있어서 그런 집의 아이들 중에는 한 반에 5, 6명이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담임 선생님 집에 모여 보충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수업 중에 질문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당당하게 대답도 하였습니다. 한 반에 두세 명이 배정되는 우등생은 대개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봄이 되면 끼니를 굶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보충수업이니 그런 것은 받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공부 내용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도 형들

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학년 때의 공부는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2학년 때부터 우등생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때에는 6년 개근상을 받았으니 학교생활에 매우 충실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것은 4학년 때의 음악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담임 선생님이 전과목을 가르쳤습니다. 4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악 시간에 나는 그 선생님께서로부터 악보 읽는 법은 물론 조 옮김법까지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음악 이론의 대부분은 4학년 때 배운 것이며 그것은 그 후 내 음악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음악 이론에 힘입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달밤, 가고파, 고향 그리워, 그 집 앞, 내 마음, 수선화, 동심초, 바위고개, 옛동산에 올라’ 등과 같은 우리 가곡이나 ‘라 팔로마, 금발의 제니, 언덕 위의 집, 산타 루치아, 산골짜기의 등불, 돌아오라 소렌토로, 물망초, 꿈과 같이, 별은 빛나건만, 남 몰래 흐르는 눈물’ 등과 같은 세계 명가곡 그리고 1960년, 70년, 80년대의 히트 가요의 대부분을 악보와 기타로써 배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웅변에 대한 것입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20대 이전의 나의 성격은 극단적으로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고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학교 주최로 해마다 학년 대항 반공(反共) 웅변대회가 열리는데, 대회 하루를 앞두고 우리 반 대표가 아파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친구 대신 나를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내가 기억력이 좋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나는 하루 만에 10분 정도 길이의 원고를 외워서 난생 처음으로 높은 단상에 올라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막히지 않고 웅변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반의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 일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이 무슨 힘이 있으며, 하늘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렌즈로 빛을 한 곳에 모으면 쉬 물건을 태울 수 있으며,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을 모아 수력발전 을 일으킨다면 수십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군 복무 시까지 학교와 사단을 대표하여 웅변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몇 사람이 앉아 있는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것은 넓은 공간에 익숙한 음성을 좁은 공간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중학교 시절의 기억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그래도 많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중학교 이전의 나로부터 벗어나 지금의 나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내 성격과 사고의 형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의 기억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20대 이전의 내가 극단적으로 내성적이었다고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고등학교 3년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내성적이었느냐 하면 큰 길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도 사람이 오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는 말하기 전에 마음 속으로 할 말을 예행 연습하여 실수할 점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야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했습니다.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와 집을 거의 논길로만 혼자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이면 내 생활 공간은 바닷가로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과 공휴일이면 ‘남일대’(南一臺)와 그 주변을 걷기도 하고 넓은 바위에 앉아 쉬면서 책도 읽고 노래도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일대’는 얇은 산으로 둘러싸인 반원형의 한적한 곳으로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잘 어울려 한 폭의 그림같은 곳입니다. 고운(孤雲) 최치원이 이곳에 들러, 그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할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모래찜질을 한 것이 그곳과의 첫 인연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여름에는 수영하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봄이나 가을이면 인적이 끊어지는 곳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는 혼자서 그곳의 자연 풍광을 만끽하면서 반나절이나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른 봄이면 바닷물이 녹색이었다가 여름으로 이어지면서 차

차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창한 봄에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바다는 한 장의 커다란 뽕잎이 되고 그 위를 수천 마리의 누에가 기어다닌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출렁대는 바다 가까운 바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세상을 품는 웅지(雄志)를 품어 보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길라도 하는 날에는 뱃사람들이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데, 그래도 바다는 노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다만 걸로만 잔잔한 파도로써 불평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참지 못할 경우에 처해도 쉽게 노하지 않도록 마음을 친근 바위의 무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정서는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에서 점차로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내 정서의 함양에 자연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독서였습니다. 나에게 독서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지속적으로 고전 명작을 가져다가 읽게 한 분은 고종사촌 누님이었습니다. 누님은 무남독녀로 성장하여 이화여자대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에 내려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박식하여 나에게는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누님이 당시 을유문화사와 정음사에서 간행한 세계명작 소설들을 가져다가 읽게 했습니다. 내 나 이 또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스·로마신화, 테미안, 부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을 상당수 읽었고 작품은 세계명작 소설뿐 아니라 국내 작가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시와 수필로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로부터 다양한 성격의 작중 인물들과 접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의 다양한 정서와 사고를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러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정서적인 성격과는 달리,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웅변이었습니다. 훌륭한 웅변가로는 자처할 수 없어도 3년 연속 우승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승기를 모교에 안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요인은 3학년 때에 맡게 된 전교 운영위원장과 연대장이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학생회의 대표로서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각 학급의 반장과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해야 하며 연대장은 운동장에서 열리는 아침 조회를 진행하고 학도 호

국단의 제식훈련(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목총(木銃)을 메고 일종의 군사훈련을 했음)에서 열병과 분열과 사열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성적이고 소극적인 데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등학교 시절은 끝나고 졸업이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국가고사라는 것이 생겨서 먼저 국가고사를 치고 그 성적으로 대학 입학을 하였습니다. 나는 가정 형편이 대학 진학을 할 정도가 못되었으므로 일찍 국가고사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주위에서 시험이라도 쳐보라고 하여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 부산으로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학 진학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대학 생활과 군대 생활

대답자: 그런데 국어국문학과로 입학하셨습니다. 진학을 포기하셨다가 진학을 결심한 동기와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학하기까지의 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방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 볼까 하고 있을 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내게 대학입시 공부를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닭이 병아리 때에는 어미닭의 보살핌으로 자라다가 어느 단계에는 어미닭의 품을 떠나 독자적으로 살아가듯이, 지금 우리는 부모의 보살핌으로 부모의 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곧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자립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자립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부모가 보살피 주고 있을 때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여 일류 대학을 진학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합격이 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을 찾아가 졸업 후에 취직을 해서 갚아 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말은 내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하려고 보니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서 재단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선생님들이 봉급을 제 때에 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과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 때까지 책을 떼지 못한 주요 학과목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당장에 부닥치는 것은 입시과목에 대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방 서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참고서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서점에 참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해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1964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 해에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던 과가 사대 영어교육과였으니 불합격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불합격을 했지만, 그로부터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4년 봄에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입주하여 중학교 학생을 지도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이라면 입시학원에 가서 서울대학교 입시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범일동에 있는 유명 학원이라는 곳에서 영어, 수학, 국어와 물리, 인문지리를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등교를 한 뒤에는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하고 그 학생이 하교한 뒤에는 영어, 수학, 국어를 지도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수강 중에 나는 문제의 접근방식과 해결과정을 이해하려고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학원에서의 수강 생활은 매일 매일이 흥미롭고 재미있었지만, 내 가정교사 생활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두 달이 지난 뒤부터 학생이 공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하고 있는 집 어른들의 따뜻한 배려로 매달 일정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 혜택만큼 학생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입주한 지 삼 개월 뒤에 가정교사를 그만두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64년의 입시준비는 그 전 해와는 달랐습니다. 학원에서 입시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강했고 고서점에서 몇 권의 참고서와 문제집을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고종사촌 형님이 자기가 서울의 유명 학원에 서 수강한 영어책과 수학책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간 뒤부터 본격적인 입시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입시준비 방법 중에서 각 과목마다 좋은 문제집 하나를 정하여 풀이에서 틀린 문제를 표시하고 그 표시가 다 없어질 때까지 되풀이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답에 풀이가 있는 것은 어디가 왜 틀렸는지 알아보고 해답에 풀이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 해답이 옳은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에 한 번 실패한 뒤에 다짐한 것은 학과 선택을 남의 권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문리과대학 ‘국문과’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어국문학과’이지만 ‘국어학’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국문학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문과’는 문학 창작을 가르치는 학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방에서는 ‘국문과’라면 작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가는 학과이며 작가는 밥 벌어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작을 한다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며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는 사람을 작가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국문과를 택한 것은 문학작품을 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품을 읽는 것이 좋았고 그것으로부터 무한한 감동을 받았던 것을 나는 내가 창작에 소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국문과’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제일 실망하고 반대한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선생님이나 은행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두 직업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밥 벌어먹을지도 모르는 ‘국문과’를 가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국문과’를 졸업하면 최소한 국어 선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면 설령 내가 작가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문학 책을 읽으면서 한 평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이것이 ‘국문과’ 선택을 합리화하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군대의 소집 영장을 받고 두 번째로 나에게 대학을 가도록

말해준 친구와 함께 상경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정인지 자정을 넘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값싼 여관 방의 이불 속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답자: 대학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선생님: 대학 합격은 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이 막연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여 마련해 둔 금 두 냇을 판 돈을 가지고 서울로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돈으로 하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한 칸 전세방에 다섯 식구가 거처하는 고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씨 고운 고모부님과 고모님 그리고 사촌들은 편한 마음으로 같이 지내자고 하였지만 내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모님 댁이 마포구 도화동에 있었으므로 마포 종점에서 출발하는 전차를 타고 종로 5가까지 간 다음 거기서 걸어서 동숭동 캠퍼스로 오기는 생활을 반년을 했습니다. 고모님의 주선으로 중학생 몇 명을 모아 아르바이트를 하여 한 달 전차비를 제외하고는 밥값도 되지 않는 돈을 고모님께 드리는 것으로 체면 유지를 했습니다. 학과 공부는 틈틈이 중앙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시험기간이면 집 아래의 마포 아파트 벤치에 앉아 시험공부를 했습니다. 가끔은 마포 전차 종점과 그 주위를 거닐면서 멀리 여의도 비행장에서 깜박거리는 불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고민한 것은 내 삶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줄을 서 있어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고 먼저 일을 처리한다거나 불법을 행하고서도 돈을 쓰거나 향응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따르면, 나처럼 고지식하고 요령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다짐하면서도 사회는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젠가 학생 생활 지도부로 가서 그 문제로 상담을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내 삶의 정체성 문제와 ‘국어국문학과’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준 것이 W. Somerset Maugham의 『인간의 굴레』(*Of Human Bondage*)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서로의 처지와 능력이 다른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제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삶은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 작품 속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 천군만마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고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문리대 교정에서 다른 대학 다른 학과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어떤 친구가 국문과는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을 못했고 그 후로 국어국문학과와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인간의 굴레’는 그 과제까지 말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인공 필립이 크론쇼라는 친구가 오래 전에 준 페르샤 양탄자 조각의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르샤 양탄자는 그 빛깔의 조화가 현란하기로 유명하지만, 그 양탄자를 구성하고 있는 실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친다면, 하나하나의 실오리에서는 아무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실 한 올 한 올이 날줄과 씨줄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할 때 비로소 그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것이다. 국어국문학과는 페르샤 양탄자를 이루는 실 한 오리와 같은 것이다. 비록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학과가 각각의 직능을 다할 때에 그 전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인문학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국어국문학과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국어국문학과에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해 일종의 긍지를 가졌습니다.

2학기에는 다행히 연희동의 모래내에 있는 신흥 주택지의 한 가정집에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입주 조건은 주로 고등학교 일학년 학생에게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가끔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국어와 영어 공부를 도와 주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선하고 착하여

안정된 가운데 1학기보다는 더 열심히 학과 공부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달 가량 계획대로 공부를 잘 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차츰 요령을 부리고 태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입대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학년을 마치고 입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견해였고 나도 그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대답자: 군대에서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1학년을 겨우 마치고 12월이나 다음 해 1월이나 2월에 입대하면 3년의 휴식 기간이 생기고 그동안에 복학하면 현재보다는 상황이 좋아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입영 지원 신청을 내었는데 그것이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니다. 그 기간에 입대할 사람이 많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쉬고 1966년 8월 27일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포병학교로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는 안동 예비사단으로 발령을 받아 보병 연대로 갔습니다.

포병이 보병 연대로 가게 된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포병학교에서 나는 측지반에서 측지병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측지병은 소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아군의 대포가 있는 데에서 적진의 목표물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적용하여 포를 쏘는 것입니다. 측지반은 교육이 끝날 때까지 매일 야외에 나가서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봅니다. 교육이 끝나면 누적된 성적에 따라 전방으로 배치를 하는데, 일등을 한 사람은 본인의 요구대로 배치를 해준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내가 일등을 했고 본인의 요구대로는 아니지만, 후방의 안동 예비사단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예비사단의 보병 연대에 자주포가 있는데 그 요원으로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연대로 갔더니 인사주임이 신병을 면담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국어국문학과 1학년을 마치고 왔다고 했더니 인사주임이 대뜸 “자네 송민을 아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잘 알며 지금 학교의 조교 선생님이요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에 송민 선생님이 자기 밑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동

료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뜰하게 돌보아주었다는 칭찬을 하시며 장교계에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장교계의 업무란 연대 소속 23명의 장교 카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 책을 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송민 선생님 덕으로 편한 신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답자: 그러면 군대생활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별다른 일은 없으시겠네요. (일동 웃음)

선생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대생활을 편하게 했지만 나름대로 충실히 근무했습니다. 입대 후 일 년도 못 되어 병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제대할 때까지 연대의 태권도와 총검술 훈련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병 때에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사단이 무장공비 소탕의 임무를 맡고 강원도로 갈 때에 나도 보름 동안 거기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우리 연대는 공비 한 명을 생포하고 두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지만, 두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후에 처음으로 전국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는데, 향토예비군이 유사시에 전투에 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범 훈련을 우리 사단이 맡았고 그 임무가 우리 연대로 내려왔습니다. 연대의 정보장교가 가상 무장공비토벌 작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내가 그것을 실행 중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장공비 역과 예비군 역을 맡은 연대 사병들과 함께 군용트럭을 타고 약 한 달 가량 경상북도 일대를 다니면서 그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시범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성기로 나가는 내 말에 따라 무장공비와 예비군의 역을 맡은 사병들이 작전을 개시하고 총을 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자: 군대생활에서 그 밖에 기억에 남을 일이라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석사과정에 입학한 뒤에 안 사실이지만, 예비사단에 근무할 때, 국어에도 흡착음(click sound)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상북도 〈예천〉 출신의 사병인데 내가 무어라고 하니까 ‘그래’라는 대답을 [x̥mɿŋ]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하려고 하는데 목에 무엇이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것은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며 발음하는 흡착음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흡착음으로 말하는

경우는 오직 ‘그래’라는 대답에 한정되는데, 그것은 〈예천〉만이 아니라 〈안동, 봉화〉 등 경상북도 동북부 지역어에 널리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대답자(이상신): [ɣmɾɿ](그래) (일동 따라해 봄. 웃음)

선생님: 들어봤습니까?

대답자(김봉국): 예.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어딴니까?

대답자: 〈포항〉입니다.

선생님: 어, 〈포항〉에도 그런 음이 있습니까?

대답자(김봉국): [ɣmɾɿ](그래), [ɣmɾɿ](그래) 하시는데요. 저희 장모님도 안동 출신이신데 [ɣmɾɿ](그래)라고 합니다.

선생님: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대답자: 그럼 제대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내가 예비사단에 처음 근무할 때에 23개월 만에 제대를 했는데,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때문에 제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35개월 7일을 근무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1968년 8월 2일에 제대를 했으므로 2학기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학기를 쉬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사정이 나아지겠지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사정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쉬임없이 흘러 1969년 1학기 등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식구가 어렵게 사는 고종사촌 누님 댁으로 갔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 정신 세계를 넓혀 준 누님입니다. 누님은 월세 두 칸 방 중 하나를 내가 쓰게 해 주었고 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겨우 밥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체면 유지를 했습니다. 금호동 고개 중턱쯤에 집이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거기서 1년을 지냈습니다.

복학을 하니 입학 동기들은 모두 졸업을 했고 69학번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차 나니까 서로 어색하여 나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상보다 2년 늦게 입학하였고 군 입대 전에 한 학기를 쉬고 군 생활 3년을 하고 다시 한 학기를 쉬고 복학을 했으니, 겉으로는 ‘막차에 탄 손님’이라면서 느긋한 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초조했습니

다.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1970년 한 해는 학과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 성적 때문에 1971년 1학기에 ‘정영사’(正英舍)라는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영사’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영부인의 성명 가운데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두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각 대학별로 일정수를 선발하여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그 기숙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숙사비는 거의 무료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려운 친척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게 되었고 숙소에 대한 걱정 없이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대답자: 그러면 전공 선택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졸업 논문 주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나는 3학년이 끝날 무렵까지 국어국문학과 의 전공이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으로 나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약 선생님께서 강의시간에 국어국문학과는 창작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강조하셔서 국문학은 창작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알았지만, 국문학이 문학 작품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려면, 창작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나는 창작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문학 전공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을 전공으로 택했지만, 실제로는 국어학 전공자는 문학 전공자보다 영어로 된 책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이 내 전공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3학년으로 진학할 때에 김완진 선생님께서 국어국문학과 전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연구실에 내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는 데에는 이병근 교수의 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국어학이 무엇을 하는 분야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말에 전공을 정해야 하므로 그때부터 국어학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 비로소 언어학 원서에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처음으로 구입한 것이 Sapir의 *Language*였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를 사전을 찾으며 읽어

보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이 John Lyons의 *An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였습니다. 언어학자의 첫째 임무는 화자들이 자기 언어를 실제로 말하는(그리고 쓰는)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라는 것, 일반언어학에서는 구어(口語)가 문어(文語)보다 중요시된다는 것 등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Language*보다는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는 겁 없이 김완진 선생님께, 뒤에 실려있는 많은 참고문헌 중에서 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들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선생님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먼저 읽어야 할 것과 나중에 읽어야 할 것을 기호로 구별하여 표시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 학문의 세계는 오직 실력만이 평가의 대상이 될 뿐이며 가정 형편이나 건강 문제와 같은 것은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 어떤 현상을 그 자체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현상을 포함하여 그 현상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상들을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항상 머릿속에 한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주제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걸어가거나 밥을 먹거나 잠 자기 전까지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날 수 있다는 것. 해결책이 생각 나면 나중에 메모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메모할 수 있도록 주머니에 수첩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체질화하여 국어의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논문을 써야 하는데, 주제를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다. 부끄러운 마음을 누르고 선생님께 내 능력으로 쓸 수 있는 주제를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중세 문헌에서 모음조화의 예외를 보이는 자료를 찾고 그 조건을 찾아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출한 학사학위 논문이 “중세국어 모음조화의 예외적 현상 연구”라는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과 교사 생활

대답자: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생각했습니까?

선생님: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공을 국어학으로 정했지만, 대학원을 진학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은행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등이 많았고 학문을 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대학으로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으므로 국어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 중고등학교로 갈 수 있었지만, 집에서는 은행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대학 진학을 하도록 권고했던 친구는 부산대학교 상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내가 은행입사 시험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렵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경제학원론』 한 권을 보냈습니다. 1학기 초라고 기억됩니다. 나는 중앙도서관 독서실로 가서 복도에서 안쪽에 있는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경제학원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내가 앉아 있는 자리보다 더 안의 빈자리에 앉기 위해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화들짝 썩던 책을 덮었습니다. 그 학생과 나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인데, 왜 내가 책을 덮었는가. 그것은 내가 취직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 내 양심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책을 버렸습니다. 그 때 내 나이로 응시 가능한 민간 기업체는 은행뿐이었는데, 내가 경제학원론 책을 버림으로써 대학원 진학 외에 남아 있던 내 마지막 진로의 가능성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원에 응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원을 가려고 한 것도 학계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나 혼자 힘으로 마쳤으니(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대학원까지 다녀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쓴 경험으로 미루어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는 것

은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학원을 진학하였고 졸업과 함께 나는 송문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대답자: 그러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원 학생을 겸하였습니까?

선생님: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때에 교장 선생님께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이틀 정도 대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내 제안을 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간 교사와 학생을 겸했는데, 수업 준비 때문에 대학원 공부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것은 ‘문법’을 제외하고는 내가 배워 알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국어 수업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어 독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어 참고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주간 고등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2학기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께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대학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야간고등학교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장 선생님께서는 내 부탁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2학년이 되면서 장훈여자고등학교라는 야간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주간에는 남자고등학교이고 야간에는 여자고등학교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대답자: 송철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장훈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전설적인 존재였다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처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내가 받는 보수만큼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학교에 부임하자 어떤 선생님이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도외시되고 사회에서도 도외시되는 아이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부임하여 수업을 해보니 학생들이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수업을 들어가보니 학년이 높아질수록 안정을 낀 학생수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교실의 조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말은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교실의 조명 때문에 여자들의 외모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을 써야 한다면 학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빨리 교실의 조명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주위의 선생님들은 그 의견이 절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드는 문제에 대해 그때까지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의 제안을 한 번도 받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 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실의 조명 시설 개선을 역설했습니다. 고맙게도 교장 선생님은 내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 전체의 조명 시설을 바꾸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숙직을 할 때에 남학생들이 어떤 여학생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장실로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야간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오후 3시에는 여학생 교실로 올라가는 복도에 철문을 달아 잠글 것과 오후 5시 이후에는 남학생을 모두 귀가시키도록 건의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장 선생님은 내 건의를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내가 전설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두 가지 일 때문일 것입니다.

대답자: 그런데 공부하고 거리가 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며 재직 중에 보람을 느낄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선생님: 동료 중에는 여학생들에게 듣기에도 민망한 말을 한다거나 회초리로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거나 강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그애들을 포기한다면 그애들이 갈 곳이 너무나 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애들에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애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혀 공부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이 서지 않아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짓궂은 학생이 내가 노래를 하나 불러 주면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노래를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노래를 한다는 것은 있

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애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 전체 학생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교실문을 모두 닫게 하고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한 가운데 나머지 시간의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학생들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운동장을 지나면 가까이 인사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야간 학교 재직 중에 보람이 있었다면 그런 애들 중에서 셋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간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2학년 반에서 수업에 열의를 보이는 학생 몇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불러서 사정을 들어보니 공부를 못해서 야간 학교로 온 것이 아니라 지망했던 주간 학교 입학 시험에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야간 학교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이 다섯 명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들을 내 하숙방으로 불러 일주일에 사흘을 국어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으로 그애들의 대학 진학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그애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 주지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공주사범대학에 입학하였고 한 명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대답자: 대학원 다니실 때는 대학원 연구실이나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선생님: 그때는 문리과대학이 동숭동에 있었고 연구실이 많지 않았으므로 지금의 304호와 같은 대학원 연구실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는 강의실 크기의 합동연구실이라는 것이 있어 그곳에 조교 근무실과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독서실은 대개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대학원생들은 주로 중앙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나는 김완진 선생님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학원생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강의가 있는 날에만 서로 만날 수 있었으므로 요즈음과 같은 그룹스터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의실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나이가 많았으므로 요즈음 대학원생들보다는 강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대답자: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로는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요?

선생님: 제일 연장자로는 한양대학교에서 정년하신 이명규 교수, 인하대학교에서 정년하신 김문창 교수, 전북대학교에서 정년하신 최진승 교수, 서울산업대학교에 계시다가 타계하신 김경훈 교수가 있었습니다.

대답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의 공부와 논문주제 결정과 논문작성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대학 3학년 말에 국어학을 전공으로 정하고 4학년 때에는 졸업논문 쓴다고 정작 국어학 관계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대학원 강의가 본격적인 국어학 공부의 입문 과정이었습니다. 정년하신 일석과 심악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기문, 김완진, 안병희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국어학에 대한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사과정 3학기가 되는 1974년의 ‘국어음운론연구’ 시간에 김완진 선생님께서 1973년에 간행된 Schane의 *Generative Phonology*를 교재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생성음운론에 접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무언가 역동적이고 재미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생성음운론의 기본적인 술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했으므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의를 끝난 뒤에 그 책을 몇 차례 계속하여 읽는 중에 생성음운론의 정체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Schane(1973)의 서문에는, 그 책이 생성음운론의 기념비라 할 수 있는 Chomsky and Halle(1968)의 *The Sound Pattern of English(S.P.E)*는 물론 다른 생성음운론 책을 접하기 위한 입문서가 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S.P.E와 다른 언어학 책 몇 권을 선정하여 외무부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구입을 부탁했습니다.

책 구입을 부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책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P.E*를 정독했습니다. 본문을 거의 번역하고 그 내용을 제시된 언어자료의 분석과 설정된 규칙과 대조하면서, 언어자료의 분석과 설명을 통하여 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심층구조와 표면구조, 음운과정, 음운규칙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음운론이라는 것이 수집된 음성형을 분석하여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을 밝히고 그것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과정과 그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을 설정하여 기저형으로부터 음성형에 이르기까지의 음운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음운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의미론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사론은 특히 국어의 형태통사론은 형태소(대부분은 형태)의 수집과 나열이 아니라 문법형태소의 공기제약과 통사기능 및 의미특성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이후에 발표한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1976)과 “현대국어의 의문법연구”(1976)는 그러한 사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학원에 입학하여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이병근 교수가 김완진 선생님 연구실로 들렀습니다. 김완진 선생님께서 자리를 뜨시면서 이병근 교수께 좋은 이야기를 해 주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논문 주제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나는 이병근 교수께 영문으로 발표한 “경기하위방언의 음운론과 형태음운론 연구”를 석사논문으로 쓴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방언연구로 쓴 것이 아니고 공시적인 현대 국어 음운론의 일부로 쓴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공시적인 현대 국어는 한 연구자가 한꺼번에 연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한 지역의 언어를 현대 국어의 일부로 하여 음운론적으로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견해에 동조했습니다. 그것은, *S.P.E*의 서문이나 다른 언어학개론서에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자연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저자들의 견해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잘 아는 고향 언어로부터 그 범위를 넓혀 언젠가는 국어 전체에 대한 음운론 연구를 하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주제가 내 고향 언어인 ‘삼천포 지역어의 음운론’이었습니다.

다. 주제를 정하고 방학 때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준비한 조사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음운론 연구를 위한 조사항목은 단어 중심의 항목이었습니다. 그것은 형태소 내부에 남아 있는 역사적 변화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는 적합하지만 공시음운론을 위한 조사항목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학점취득이 끝남과 동시에 논문을 제출할 계획으로 부지런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것은 대학 입학 후부터 그때까지 늦어진 3년을 만회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막차에 탄 손님’으로서 잃어버린 물리적인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만회할 수 없지만, 정신적인 노력으로는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수면 시간을 줄인다고 남이 2년에 마치는 것을 1년에 마침으로써 늦어진 시간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석사학위 논문(“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1975))이 그 첫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계획대로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논문 발표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논문이 가진 문제점이 내 눈에 환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글이 학술적인 문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했고 내용이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성음운론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제대로 흉내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으’와 ‘어’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금’(線)과 ‘법’(法)이 주격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기미]와 [베비]으로 실현되므로 기저음소에는 ‘으’와 ‘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 재직 시절과 방언연구 방법론의 확립

대답자: 대학 강의는 몇 년도쯤에 처음 하시게 되셨습니까?

선생님: 대학 강의는 1976년 1학기를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한 것이 처음이고 그 해 9월에 영남대학교로 왔습니다.

대답자: 국어학 연구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번에는 영남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1975년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무급조교로 있으면서 권두환, 권영민 교수와 함께 동송동 캠퍼스에서 학과의 집기를 트럭에 나누어 싣고 관악캠퍼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 2월 말로 장훈여자고등학교 교직을 사임하고 3월에 국어국문학과의 조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근무하다가 9월에 영남대학교 전임이 되었습니다. 대구로 떠나기에 앞서 이기문 선생님은 최소 5년은 근무해야 할 것을 부탁하셨고 김완진 선생님께서는 교육과 연구를 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할 것과 당분간은 이견이 있어도 자제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최소한 10년은 근무지를 옮기지 않을 것과 옮긴다면 한 번만 옮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영남대학교에는 두 개의 캠퍼스가 〈경산〉과 〈대구〉에 있었습니다. 〈경산〉 캠퍼스는 대학본부가 있는 주 캠퍼스이고 〈대구〉 캠퍼스는 야간부가 있는 부 캠퍼스(나중에 의과대학이 됨)였습니다. 〈경산〉과 〈대구〉 캠퍼스 중간 쯤에 학교 숙사인 13평형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빈 곳이 있어 그곳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3년 반의 하숙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두 캠퍼스를 옮겨다니며 강의를 했습니다.

나보다 한 학기 뒤에 조동일 교수가 영남대학교로 부임했습니다. 그 뒤로 영남대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족문화연구소’가 설립되고 젊고 유능한 교수들이 각 대학으로 대거 초빙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 전체가 새로운 기운으로 치솟는 듯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1978년에서 1980년까지 3년간은 영남대학교의 르네상스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시절의 내 강의는 이론과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강의에서 ‘실제’는 방언이나 지역어에 대한 분석과 설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대학의 강의,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의 국어학 강의를 대부분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언어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표준어는 어떤 지역의 출신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강의가 끝난다면 언어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연어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 방안을 학생들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 강의 방법이 국어학자들로 하여금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국어학’에 속하고 방언

이나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방언학’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표준 국어를 연구하는 것이 국어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전공강의는 방학 전에 수강 신청자에게 강의와 관련된 조사항목을 배부하고 방학 동안에 자기 거주 군과 그 인근 몇 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이론 강의를 끝나면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언어 분석을 할 줄 모르는 표준국어학자가 아니라 언어학자로서의 국어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와 동일한 강의 방식을 계속해 온 것도 그와 같은 목적에서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영남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다른 전공분야의 훌륭한 동료 교수에게서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도 조동일 교수와 상당 기간을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나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일 교수와는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으므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고 점심 먹고 한 시간 정도 캠퍼스를 거니는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와 교육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로 나는 조동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조동일 교수는 자기가 작업 중인 연구와 그 진행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나는 연구에 대한 큰 자극을 받았고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동일 교수는 학문연구에만 열중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다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2학기 한 학기로 끝나는 과목을 위하여 여름 방학 내내 강의준비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하라고 하신 김완진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강의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해왔던 것은 그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대답자: 선생님의 경우, 영남대학교 시절의 10년은 선생님의 국어학 연구의 기반이 형성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내 연구와 관련하여 영남대학교 시절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간 2년 뒤에 ‘민족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민족문화연구소’는 민족문화의 여러 영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민족문화의 주체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표방하고 ‘민족문화총서’를 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차년도에 다섯 권의 총서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의 한 권이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민족문화총서 4)입니다.

이 책은 생성문법론의 관점에서 한 지역어를 음운, 형태, 통사, 어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이라는 점과 대비방언학적으로 연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책의 저술을 위한 현지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자연어로서의 국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으며 많은 새로운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반촌어’와 ‘민촌어’가 구별되고 그와 함께 ‘반촌어’와 ‘민촌어’가 구별된다는 것. 그러한 언어의 차이가 자연 장애물이 없는 두 지역간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사회방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p-, s-, t-변칙동사를 중심으로”(1985)와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li-, la-, ε(jə)-, h-변칙동사를 중심으로”(1988)나 “어미의 재구조화에 대하여,”(1991)와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1993)에 제시된 ‘어간의 재구조화’나 ‘복합기저형’(이것은 나중에 명명된 것임),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등의 개념은 모두 이 책의 작업과정에서 생각되었습니다.

대답자: 저는 그 책을 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웃음) 그 책에서 일기 형식으로, 언제 가서 무슨 조사를 했고 조사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일기 형식의 글이 있는데 어떤 의도로 그런 일기 같은 것을 넣으셨습니까?

선생님: 자연어에 대한 연구는 현지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어학과 같이 그런 연구의 역사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조사·연구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어학의 경우는 그런 경험을 가진 연구자로부터 직접 듣고 보지 않는 한 그 방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작업 과정이나 방법이나 문제점을 기록하여 후학들에게 알려

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작업 일기를 수록한 의도입니다.

대답자: 그리고 그 책에서 보면 어휘나 형태, 통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방언 조사를 하셨는데요, 제 반성부터 하자면 저는 그런 쪽에는 아직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이고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편인데요,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방언 조사가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면 그런 것까지 같이 조사가 되고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혹시 형태나 통사 같은 것은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그 방면의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때까지 사용한 현지조사표를 보면 거의 어휘나 형태 중심의 항목 조사였습니다. 그 점에서 어휘조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태소 특히 문법형태소의 통사제약이나 통사기능 및 의미특성을 밝히려는 생성문법론적인 관점에서 형태나 통사 연구를 위한 조사는 전례가 없으므로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어의 문법형태소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최현배 선생님의 『우리말본』을 대상으로 거기에 수록된 문법형태소를 선정하여 표준어로 단문(短文)을 만들고 조사지역의 토박이 고등학생 3명을 정하여 그 단문들을 자기들 방언으로 어떻게 말하는가를 미리 의논하게 하고 그들이 그 단문들을 자기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 단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를 위한 현지조사에서 세 가지 자료 조사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항목조사와 단문조사와 자연발화조사가 그것입니다. 항목조사의 경우에는 제보자의 표준어 의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여 전형적인 방언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조사결과가 옳지 않으면 확인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큼니다. 그 경우에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자료의 자연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법은 항목조사와 함께 단문조사와 자연발화조사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보자의 표준어 의식은 ‘항목조사>단문조사>자연발화조사’의 순서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문조사와 자연발화조사의 결과는 항목조사 결과에 대한 자연성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형태론과 통사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음운론을 위한 단문과 형태론과 통사론을 위한 단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책 보는 것을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사람은 학자가 아니다, 뛰어가는 바람에 다 날려 보냈다’ 등은 음운론을 위한 단문의 예이며 ‘언제 떠나더라도 또 오너라, 품앗이를 할지언정 농땡이 노릇은 안 하겠다, 자꾸 읽을 것 같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등은 형태론이나 통사론을 위한 단문의 예입니다. 물론 음운론을 위한 단문 속에도 형태론과 통사론과 어휘론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형태론과 통사론을 위한 단문 속에도 음운론과 어휘론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답자: 선생님의 논저 중에서 박사학위 논문인 『월성지역어의 음운론』은 그 뒤에 방언이나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많은 학위논문의 전범(典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월성지역어’(앞으로 ‘경주지역어’라 칭함)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을 함께 다루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경주지역어를 연구대상 언어로 정한 것은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에서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어가 매우 특이한 언어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거주하는 <대구>에서 <경주>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이 현대국어의 발상지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국어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라면 당연히 경주지역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인데, 놀랍게도 그 지역어에 대한 연구 업적은 다섯 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행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무렵에는 생성문법론의 관점을 역사언어학이나 비교언어학에 적용한 논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P. Kiparsky(1968)의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와 R. D. King(1969)의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 Kiparsky(1971)의 “Phonological Change”와 “Historical Linguistics”, 그리고 R. Anttila(1972)의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와 T. Bynon(1977)의 *Historical Linguistics* 등.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역사언어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논저들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지역어가 고대 신라어와 맥을 잇고 있다면 공시 음운론과 통시 음운

론을 함께 다루어 봄으로써 통시적인 것이 어떻게 공시적인 것으로 연결되는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공시적인 기술을 하고 다음에 통시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시적인 기술에서 통시적인 기술에 다루어야 할 것을 미리 다루어야 하므로 통시적인 기술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통시음운론을 먼저 다루고 공시음운론을 나중에 다룬 것 입니다.

대답자: 최근에도 국어사와 관련되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신다면 고대국어 시기의 신라어, 즉 경주 중심의 신라어와 현재의 경주지역어는 어떤 관련성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까?

선생님: 당시의 신라어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없으므로 몇 퍼센트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가의 내용과 경주지역어를 대조해 보면 경주지역어에 신라어의 요소가 발견됩니다. ‘이게 너저 집이가<이것이 너의 집이니>?’와 ‘이게 누 집이고<이게 누구 집이니>?’에서 발견되는 의문법 어미 ‘-가, -고’는 향가에도 있고 경주지역어에도 있습니다. 또 ‘벌아레 수 다<벌에게 쏘였다>.’, ‘뱀아레 물 다<뱀에게 물렸다>.’에 나타나는 ‘-아레’는 현대국어의 ‘-에게’나 ‘-한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격어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직 국어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입니다. 아마도 신라어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묵아도, 묵아라, 묵앗대}<밥 {먹어도, 먹어라, 먹었다}>, 옷 {입아도, 입아라, 입앗대}<옷 {입어도, 입어라, 입었다}>’에서 부사형어미 ‘-아’가 모음조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 향가에서 발견되는 ‘(花粉)折叱吽<것개<꽃을> 꺾어>’(현화가)나 ‘散花唱良<산화블러<산화블러>’(두술가)와 일치하는 것은 신라어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주지역어와 신라어와의 관계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답자: 이제 화제를 선생님의 해외 체류 생활로 바꾸겠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영국을 다녀 오시고 그 뒤에 일본을 네 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그때의 경험이나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국의 에딘버러대학 언어학과로 간 것은 1983년 8월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인문학 분야에서는 해외로 갈 기회가 있어도 선뜻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가족을 동반하고 갔습니다. 영국으로 가게 된 동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국어학의 연구대상에 대해 언어학자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분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주였고 그 다음이 음운론에 대한 공부와 유명 대학의 강의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별언어학으로서의 국어학의 연구대상이란, 『월성지역어의 음운론』의 서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표준국어가 아니라 자연어로서의 국어입니다. 그 시기에 에딘버러대학 언어학과에는 음운론 연구자인 R. Lass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했는데, 내가 그 대학으로 갔을 때에 Lass 교수는 한 학기 전에 케이프 타운 대학으로 옮기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언어학과로 초청해 주었으며 일반언어학 전공 주임인 의미론 연구자 J. R. Hurford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내 생각을 전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Hurford 교수는 자기도 나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대신 논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후로 국어학의 연구대상이 자연어로서의 국어가 되어야 한다는 내 생각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목적인 음운론에 대해서는 배울 수 없었지만, 몇 강좌를 청강한 결과 강의방법은 이론과 실제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시간 강의일 경우에 두 시간은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한 시간은 반드시 자료를 분석하고 토론했습니다. 이러한 강의방법은 내가 해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내 강의방법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에딘버러에 사는 동안 나는 두 가지 일에서 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 뒤쪽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탁소 지붕 수리 과정이었습니다. 슬래브로 되어 있는 지붕을 뜯고 새로 고치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 2, 3주일이면 끝날 일을, 6개월이나 되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공사기간을 끌고 있다는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딘버러 역 부근의 건물 신축 공사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에딘버러에 도착할 때 건물의 두번째 층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층이 내가 귀국할 무렵에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19년간 그곳에 살고 있는 교포에게 세탁소 지붕 수리와 에딘버러 역 부근 건물 신축 공사와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분이 내 생각에 동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지붕 수리 공사는 일하는 사람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붓고 그것이 굳어지는 기간과 그 위에 콜타르를 바르고 다시 그것이 굳어지는 기간을 제대로 지키면 그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에딘버러 역 부근의 건물 신축 공사의 경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친 지붕은 몇 십년 동안 아무 탈이 없으며 완공된 건물은 최소 백 년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가 어찌 지붕 수리나 건물 공사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동일한 이치가 학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네 번을 갔지만, 학문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문화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인은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경에 있을 때에, 지하철 순환선에서 두 번이나 열차 선반에 노트북 컴퓨터를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모두 되찾았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일본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센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 언어 시험은 ‘국어’이지 ‘언어능력’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경대학은 센터 시험으로 정원의 1.5배 수를 뽑고 학교 자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다섯 과목을 완전 주관식 시험으로 시행하여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어학은 언어학 전 분야에 걸쳐 공시적·통시적으로 넓고 깊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연구 결과가 총서류나 전집류로 집대성되어 연구자들이 과거의 연구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여 일본보다 10년이 뒤져 있다거나 20년이 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얼마나 뒤져있다고 하겠습니까? 위에서 제시한 것들과 같아지려면 50년이나 100년이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특히 문화면에 관심을 가지도록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재직 시절과 방언연구의 정밀화

대담자: 이제 서울대학교로 온 과정과 그 후 국어방언학에 대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남대학교로 가서 첫 강의를 끝내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쯤 영남대학교를 떠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더니,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인 선배가 서울대학교에서 온 분은 서울에 자리가 생기면 전임으로 온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가 서울로 가는 간이역이냐는 불평이 많다는 말을 나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학생에게, 학교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10년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영남대학교에서 근무한 지 8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학교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학교 출신자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고 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 있는 두 대학교로부터 초청하는 편지와 전갈이 왔습니다. 내가 학생에게 약속한 10년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궁한 사유로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남대학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도 초청의 편지와 전갈이 왔습니다. 두 학교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할 무렵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시던 이종철 교수께서 성심여자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국어방언학 전공자를 뽑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남대학교에서 만 10년을 근무하고 서울대학교로 왔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내가 서울대학교로 오기 전에 나를 초청해 주신 두 대학교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한 번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몇 번이나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서울대학교로 오기 전까지 나는 오랫동안 국어방언학 강의를 담당해 왔지만 나를 방언학 전공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방언학 전공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국어음운론 외에 국어방언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했습니다. 나는 1990년 일본 천리대학에 객원교수로 가기 전까지 ‘방언학’은 개별방언이나 지역어에 대해 연구와 지리방언학적 연구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많은 일본방언학 연구 논저를 보고 그런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방언학’은 한 언어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방언들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방언론, 방언구획론, 대비방언론, 비교방언론, 사회방언론, 접촉방언론이 ‘방언학’의 중심이 되고 개별방언론은 방언학과 국어학 양쪽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 부사형어미 ‘-아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1992), “경상남북도간의 방언분화연구”(1992), “경상도의 방언구획시론”(1994),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대조연구”(1997), “국어방언학의 체계”(2005) 등은 내가 국어방언학 전공자로 임용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입니다.

대답자: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부임 후인 다음 해에 학술원이 주최한 『한국언어지도집』작성을 위해 전국 방언조사와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작업이 선생님의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한국언어지도집』(앞으로 『지도집』이라고 칭함)은 국제학술원연합(Union Académique Internationale)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러 언어권의 지도집을 위한 것으로 1988년에서 1990년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지도를 제작하여 출판된 것입니다. 이 『지도집』은 국어의 운율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성조’와 ‘음장’ 체계의 분포도와 그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집』은 종래 국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국어의 운율체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특히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까.

이 작업은 나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경남방언과 경북방언의 성조체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의 경계를 중심으로 환상적(環狀的)으로 분포되어 있는 무성조 무음장 지역의 존재는 고대국어 특히 신라어와 고구려어와 백제 상층어의 관계를 해명하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남방언에 대한 지리방언론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종래에 경남방언은 ‘고조, 중조, 저조’의 세 성조소를 가지고 경북방언은 ‘고조, 저조’의 두 성조소를 가지는데 ‘저조’는 다시 ‘장, 단’의 음장을 가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집』 작성을 위해 경상남북도를 군 단위로 조사한 결과 경남방언은 ‘고조, 저조’의 두 성조소를 가지며 경북방언은 ‘고조, 저조, 상승조’의 세 성조소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1990),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1998), “현대국어의 성조형과 그 분포”(1999)는 『지도집』 작성을 위한 조사 성과입니다.

그리고 무성조 무음장 지역의 존재는 오랫동안 나에게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전선 이남에는 무성조 무음장 지역이 제주도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휴전선 이북에는 어떻게 해서 무성조 무음장 지역이 주로 환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과 함께 『지도집』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국사학자인 이기백 선생님이 무성조 무음장 지역이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지대와 일치한다고 한 말이 장기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이 신라와 발해의 국경지대와 더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성조 무음장 지역이 성조어와 음장어(?)가 접촉하여 간섭을 일으킨 결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일찍이 제주방언이 무성조 무음장을 가지게 된 것은 성조어와 음장어의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한 이기문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나는 국어가 16세기 중반 이후에 성조언어에서 음장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부터

신라어는 성조언어이고 고구려어는 음장언어(?)였으며 언어가 다른 만큼 신라와 고구려는 민족도 달랐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전공자와 고대사 전공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내가 언어학적으로 그런 사실을 주장하는 논문을 쓰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한 고고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전공분야로부터 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나는 국어 자체 내에서 논거를 찾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에 발견한 논거를 바탕으로 “국어의 통시음운론 개관”(1997)에서 처음으로 중세국어(중앙어)와 그 이전의 국어가 성조언어였다는 기존의 견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고 이 문제를 2007년 12월의 국어학 회 제34회 겨울학술대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문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조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음장 지역 속에 무성조 무음장 지역이 분포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성조 무음장 지역의 분포에 대한 설명은 비록 내 가설을 입증하는 논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학술원 지도작성 작업으로, 동남방언에 대한 지리방언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도집』을 위한 성조 조사와 함께 내가 별도로 작성한 120개의 항목을 군 단위로 조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가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 부사형어미 ‘-이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1992), “경상남북도간의 방언분화연구”(1992), “경북방언의 모음조화”(1993), “경상도의 방언구획시론”(1994) 등입니다.

대답자: 선생님은 2004년에 『국어음운론』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술어와는 다른 ‘X음소화’, 예를 들어 ‘구개음소화’ 이런 술어를 쓰셨는데 그런 술어를 쓰시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생님: 구조주의 음운론은 음성을 바탕으로 음소를 설정했습니다. 그러

니까 ‘음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음, 모음, 양순음’ 등의 술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그것이 음성과 음소를 지칭하는 데에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생성음운론은 음성형을 바탕으로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형태소)을 설정하지만, 생성음운론의 본령은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할 때에 형태소 경계에 있는 형태음소가 거치는 음운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한 음운과정은 음성으로 실현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음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태소를 구성하는 형태음소는 ‘자음소’나 ‘모음소’나 ‘양순음소’ 등으로 명명해야 하고 음운과정은 모두 ‘X음화’가 아니라 ‘X음소화’로 명명해야 합니다. 내가 ‘X음’이나 ‘X음화’보다 ‘X음소’나 ‘X음소화’라는 술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생성음운론의 술어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담자: 선생님은 지금 『경주어대사전』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경주어대사전』은 『경주 속담·말 사전』의 공편저자인 김주석 선생과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선생은 경주시 출신으로서 연세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고 CPO와 CEO를 지낸 분입니다. 1984년에 만났는데, 사전의 형식은 내가 구상하고 내용은 김주석 선생이 채우도록 분담하여 지금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어학자와 토박이 조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이런 작업이 가지는 이점(利點)은 다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어학자는 사전의 내용을 학문 연구에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의 형식을 구상한다는 것이고 토박이 조사자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국어학자가 조사자가 될 경우에는 도저히 조사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언어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어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출간한 방언사전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노고는 인정되지만, 언어학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안타깝게도 그들 자료가 실제 연구에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국어학자와 토박이 조사자가 협력하여 방언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자: 선생님께서는 지도학생을 받아들일 때에 무슨 계약서를 쓰게 하셨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선생님: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은 국어학자들에 의해서 국어학 연구에 수용되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변형·생성문법론은 주로 미국대학교의 언어학과에서 그 이론을 공부한 분들이 국내의 젊은 국어학 교수나 국어학을 전공하려는 대학원생들에게 그 이론을 전수함으로써, 극히 일부는 국어학자들이 스스로 그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국어학 연구에 수용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않아서 젊은 국어학자들의 논문이 이론 추구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귀납법적 연구의 전통을 가진 국어학에 연역법적 연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타당하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국어학계의 새로운 분위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일반언어학과는 달리, 개별언어학으로서의 국어학은 국어의 제 현상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국어가 가진 공통성과 방언이나 지역어가 가진 특수성을 밝혀내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언어학에서 목적으로 하는 보편성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일반언어학을 전공한 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언어학을 전공한 분들은 언어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강의나 강연에서 언어의 보편성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별언어학인 국어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 분들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형·생성문법론이 무엇이며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국어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추구하는 데에 적용하여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지도학생을 처음부터 이론을 추구하는 연구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런 연구자는 연구의 생명이 짧다는 것을 몇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론 추구는 국어의 제 현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한 뒤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그러한 내 생각을 반영한 것인데, 학위논문은 반드시 현

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로써 쓸 것, 학위 논문은 이론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논문을 쓸 때에는 주제 선정에서 자료수집과 정리, 개요작성 등 논문 작성의 각 단계를 지도교수와 상의할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두 가지 외에는 잘 지켜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계약서 작성 단계를 없었습니다.

작문교육에 대한 생각

대답자: 선생님, 지금까지 전공 연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기초교육과 관련된 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작문 교육 즉 학술문장 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문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영남대학교로 간 다음 학기에 조동일 교수가 영남대학교로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조동일 교수가 발의하여 여러 분야의 글로 구성되어 있던 종래의 ‘대학국어’를 학술문장 쓰기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어’와 ‘작문’을 분리하고 『대학국어』와 『대학작문』이라는 두 권의 교재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이런 방식은 1989년도까지 계속됨). 많은 대학교에서는 ‘대학국어’를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벌써 학생들의 학술문장 쓰기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저조한 상태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므로 ‘대학국어’가 교양 위주에서 벗어나 학술문장 쓰기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교재 개편의 이유였습니다. 책은 ‘문의 이해, 문단의 이해, 논문의 이해’가 중심 단원을 이루도록 하고 그 중에서 나는 ‘문의 이해’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개편된 교재를 3년간 가르치고 다시 교재를 개편했습니다. 교재 개편은 첫 교재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되 각 단원의 필자를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문단의 이해’를 맡았습니다. 전임자가 쓴 ‘문단의 이해’는 문단의 종류, 문단의 구성, 통일성, 긴밀성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적합한 문단을 쓰기 어렵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작문 책이나 국내의 출판물에 들어 있는 ‘문단’에 대한 기술은 한결같이 추상적인 이론 중심으로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된 책 중, 표지에 composition이나 rhetoric이 들어있는 책에 문단에 대한 훨씬 구체적인 설명과 연습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석사논문을 쓸 때에는 문단의 개념도 몰랐으므로 우선 내가 알기 위해서 책 몇 권을 대출하여 ‘문단’ 부분을 거의 번역하다시피 하고 그것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단의 외적 형식, 문단의 개념, 화제와 화제문, 화제문과 뒷받침문, 문단의 구성과 전개 방식, 문단의 통일성과 긴밀성의 개념과 그 유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문단의 이해’를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배운 내용을 응용하여 풀 수 있는 연습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글을 쓰는 데에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단’에 대해서와 같이 ‘문장’에 대해서도 중요 부분을 번역하고 그것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처음에는 교재 작업을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에 나는 학술문장 쓰기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한 글쓰기 원리를 논문 작성에 적용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논문 글이 쉽고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학술문장 쓰기에 관심을 가졌고 외국으로 나갈 때에는 서점이나 고서점을 다니면서 그와 관련된 좋은 책이 있으면 구입하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은 복사했습니다.

그 원리를 배우지 않아도 천부의 재능으로 일상적인 글이나 문학적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학술문장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글쓰기에 천부의 재능을 가지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상적인 글이나 문학적인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학술문장은 더욱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학술문장 쓰기 교육이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글쓰기의 원리를 배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남을 감동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쉽고 분명하게 남에게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 자신이 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고등학교 ‘국어’ 즉 ‘영어’ 수업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거쳐 에딘버러대학에 입학한 유학생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기초에 시대별, 작가별, 작품별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제출하면 담당 선생이 그에 해당되는 저서 30권의 목록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것을 읽고 에세이를 작성해서 내며 담당 선생은 그것을 심사하여 영어 성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 고등학교 학생의 ‘국어’ 수준입니다. 구미의 수준 높은 대학의 학생들은 대개 이런 정도의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학 2학년까지 writing이나 composition이 개설됩니다. 그것은 글쓰기 능력이 엘리트의 중요한 자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국제 전시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물건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논하는 글을 다섯 문단으로 쓰라”는 지시에 대해, 한국 최고 수준의 대학이라고 공인하는 서울대학교 2, 3학년 학생 중에 ‘시조’, ‘햇불’(‘햇불 데모’에서의 ‘햇불’을 지칭하는 듯함), ‘훈민정음’(‘문자’를 지칭), ‘반도체’를 보내겠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물건’입니까?

이러한 일은 대학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내의 여러 대학교수들이 논문의 문장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학위논문 심사를 하려고 글을 읽어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제출된 석사·박사 학위논문도 대개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술문장 쓰기’의 실정입니다.

‘학술문장 쓰기’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서 그 기초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대학 1학년생의 말을 들어보면, 수학능력 시험에 ‘글쓰기’와 ‘국어문법’의 출제 비중이 약하므로 ‘작문’과 ‘문법’은 배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

교의 현직 교사들도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니 ‘학술문장 쓰기’를 강조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쓰기’를 위한 좋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술문장 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끝으로 재미 있는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자체 입학시험 과목으로 ‘논술’, ‘문학 작품의 이해’, ‘요약’을 출제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로부터 대학 입학시험 과목으로 ‘국어’는 안 되니 ‘논술’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문학작품의 이해’는 ‘국어’에 속하는 것이며 ‘국어’는 ‘본고사’라는 인상을 주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과목으로서의 ‘국어’는 ‘읽기(독해), 쓰기(작문), 듣기(청해), 말하기’를 포괄하는 상위어이고 ‘논술’은 ‘작문’에서 ‘서사, 묘사, 설명, 논증’이라는 서술방법 중 ‘논증하는 글’이니까 ‘작문’의 하위어입니다. 입시과목으로 ‘국어’는 안 되니 ‘논술’만 하라. 이것이 한국의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어’ 과목의 교육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어’ 과목의 교육 목적이 우리글과 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현재의 ‘국어’ 교육으로서는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이 ‘영어’나 ‘물리’ 과목에서 실패한다면 그 학생은 그들 과목에 한하여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학생이 ‘국어’ 과목에서 실패한다면 그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삶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대답자: 이제 대답을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년을 앞두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선생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운명’이라고 한다면 나

는 한 평생 ‘운명’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네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받고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은행 시험을 포기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남대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대학교로 옮기려고 결심한 순간에 서울대학교로 오게 된 것이고 네 번째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게 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운명적인 삶을 이어오면서 나는 한 평생 많은 분들의 도움만 받고 살았습니다. 내 육신을 있게 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고동락하며 내 발전을 격려해준 형제들, 그리고 내 감성을 일깨워주신 고종사촌 누님, 진학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대학진학의 꿈을 가지게 해 준 친구, 대학입학 후에 1년 동안이나 단칸 방에서 나를 한 가족으로 맞아 살게 해 주신 고모님 내외분과 고종사촌들, 그리고 복학 후에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한 가족으로 맞아 준 고종사촌 누님 내외분과 조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국어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선배·후배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언급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합니다.”라는 헛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자: 끝으로 정년 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나는 정년 전에 끝내어야 할 많은 일들을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일들을 끝내려면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등병 시절에 추위로 몸을 떨면서 밥통을 들고 나를 때에 마음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봄이 있는 한 겨울은 춥지 않다.” 이와 같은 생각을 Samuel Ullman은 ‘청춘’(Youth)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 사람은 나이로써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버림으로써 늙는다.” 나는 아직도 쉽게 감동하며 나에게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청춘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년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정년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저기 사람들이 사는 것을 구경했는데, 내가 다른 삶을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겁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환경과 마음을 정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답자: 긴 시간 귀한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